

시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소멸 위기 낮춰야



박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UN의 '세계인구전망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천176만 명에서 2040년 4천910만 명, 2070년 3천471만 명, 2100년 2천200만 명으로 충격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의 병행이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법과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벌 기업들이 생산하는 몇 개 품목에 집중된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강철, 석유화학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社說

'메이드 인 광주'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거는 기대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소형차 답지 않은 넓은 실내공간, 고급차 수준의 안전 편의 사양 등 동급 최고 수준이다.

차 브랜드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차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GGM은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계획한 1만7천대보다 25% 늘어난 2만1천5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폐지수집 노인 안전 보호·생활안정 선도하는 광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광주의 경우 노인 인구 대비 0.18%로 최다였다. 전국적으로 1만4천831명으로 집계됐으며, 광주는 616명, 전남은 606명이었다.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또 휴대용 선풍기, 형광 망사 안전조끼, 양산 등, 쿨스카프 등 9가지 물품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는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KB국민은행의 기부를 통해 경량손수레 160여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수요 조사가 끝나는데로 제작·보급한다.

기고

어린이 건강권 책임질 국립의대 설립 지금이 기회



최은진 전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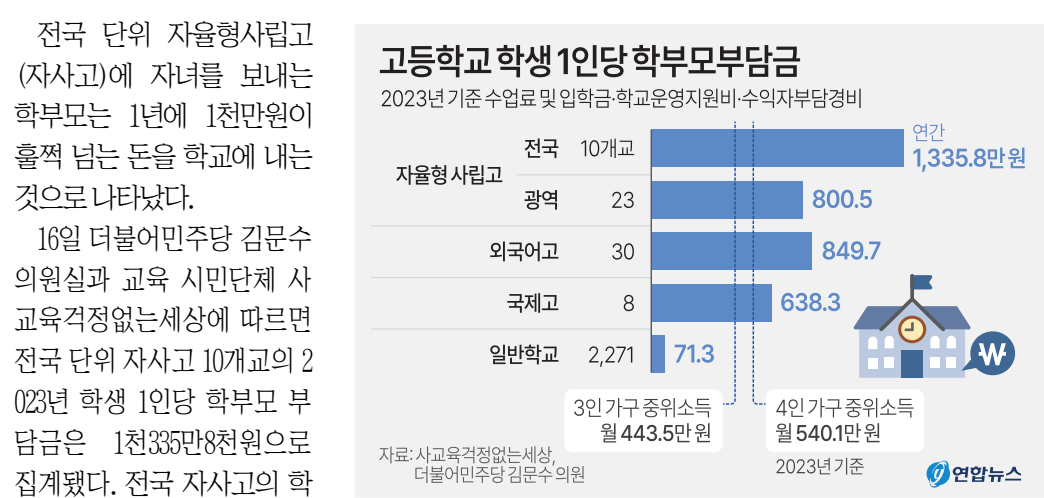
최근 경북 구미 초등학교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사장 덤프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되는 교통사고 소식은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한다. 동시에 이런 사건을 접할 때 마다 나는 내 아이들의 건강권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전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의대 설립을 요구해 왔다. 이런 간절함에 하늘도 탄복했을까? 지난 3월 전남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립의대 문제는 전남도에서 결정하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픽 뉴스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1년 1천336만원...일반고 평균의 19배



취재수첩

인사가 만사다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목포시가 지난 15일자로 단행한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특정 소수직종 승진 등에 따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승진이 의결되거나 특정 소수직종이 국장을 2명이나 차지하고 전문직렬이 무시되는 등 불만이 터지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우리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에게 있음에도 다음에 승진해 주겠다는 약속 설도 흘러나온다.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닌가 싶다. 인사철학이 있어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